

追慕辭

오늘 우리는 종문(宗門)의 위대한 종장(宗匠)이시며 현대불교의 새로운 문을 열었던 경봉당(鏡峰堂) 정석대종사(靖錫大宗師)의 30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큰스님의 가르침이 시공을 넘어 이어지니 지난 세월은 그저 순식간(瞬息間)에 불과할 뿐입니다.

스님께서 생멸이 없는 법을 찾아 망망대해로 나아가듯 성해(聖海)스님의 문하로 출가한 인연이나, ‘하루 종일 남의 보배를 세어도 반 푼 어치 이익도 없다’는 화엄경 구절에 크게 발심하여 전국의 선원을 돌며 수행정진을 거듭한 것은, 자신을 운영하는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공을 찾겠다는 실로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정력을 얻기 위한 치열한 수행속에서 마침내 천지간에 오롯한 일원상(一圓相)이 나타나는 경지를 경험하고 일렁이는 촛불 속에서 주인공과 환희로써 마주하셨습니다. 이후 참선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 후학을 지도하는 한편 만해스님을 비롯하여 효봉, 전강, 한암 스님 등 기라성 같은 대종장들과 나눈 편지에서는 눈밝은 선사의 활발발한 선지(禪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풍을 크게 진작하면서도 신도들과의 만남을 정진과 다를 바 없이 여기셨기에 불자들에게 염불수행을 지도하고 화엄산림법회(華嚴山林法會)를 개설하여 대중 교화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이상적인 불제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청정수행과 교화행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시(詩), 서(書), 화(畵), 그리고 차(茶)까지 두루 갖추어 불법을 담아내니 근기에 맞게 중생을 교화하는데 막힘이 없으셨습니다. ‘영축산 도인’이요, ‘통도사 군자(君子)’라고 칭송되었던 스님의 선시에는 깨달음의 향기가 가득하고 스님이 남기신 유필과 유묵은 전국 각지 사찰에서 대중들에게 법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봉대종사님의 30주기를 맞아 큰스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평생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추앙받았던 그 모습에서 스스로 자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토해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도 설법을 위해 법상에 오르셨던 그 모습에서 참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합니다. 스님의 치열한 구도행을 우리 후학들의 수행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불교사에 ‘빛나는 봉우리’ 이신 경봉 큰스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은 스님의 30주기를 맞아 큰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길과 우리 종단이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거듭 나는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 실천할 것을 서원합니다.

끝으로 30년을 한결같이 큰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방장큰스님을 비롯한 문도회의 모든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